

# 중견기업 재직자도 연 1.2%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상품 대폭 개선

소득 기준도 맞벌이 가구 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연 1.2%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해 18일 출시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구분	현행	개선(안)
대출 대상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시 만 39세)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중소·중견기업 재직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시 만 39세) ·(단독, 외벌이) 연소득 3,500만원 ·(맞벌이) 연소득 5,000만원
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조건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100%,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100%, (1억원 초과) 1억원
대출 사후관리	·6개월 단위 이·퇴직 여부 확인 ·대기업 등 이직시 가산금리 2.3% 부과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 이용가능) *4년 이용후 버팀목전세대출 대한 ·2년 후 기한연장시 확인 ·대기업 등 이직시 버팀목대출 금리 적용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

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당초 대출의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제한했다.

앞으로는 취업 일자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이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대출 이용 후 사후 관리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엔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면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앞으로는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 기업 하반기 채용 소식 |

### 동원그룹 계열사 9곳 등 150명 채용

전국 23개 대학서 채용설명회

동원그룹이 201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푸드, 동부익스프레스 등 9개 주요 계열사에서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생산, 건설, 물류, IT 등 다양한 부문의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150여 명이다.

이번 공개채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과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실무진 면접 ▲2차 경영진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10월 4일 14시까지이며, 동원그룹 채용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 28일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들은 12월말부터 약 3주간의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동원그룹은 2018년도 신입사원 공



개채용을 맞아 전국 23개 대학교에서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회를 진행한다.

채용설명회는 그룹 및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직접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채용설명회에 앞서 진행되는 채용상담회는 인사 담당자와 현장 모의면접 형태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서류전형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김인철 동원그룹 HR지원실장은 "동원그룹은 미국, 베트남, 세네갈 등 해외를 무대로 글로벌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동원그룹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KGC인삼공사 R&D 등 신입 채용

10월 4일 오후 5시 접수 마감

KGC인삼공사가 201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일반사무, 제조, R&D이며,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다.

일반사무분야는 전공 무관하며, 공인노무사·정보보안·SCM·품질관리·감사·전자상거래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영어 및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어학 우수자를 우대한다.

제조 분야는 이공계열 전공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R&D 분야는 농학·화학·식품 관련 전공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인·적성검사, 역량기술



서 평가 및 역량(1차)면접, 임원(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GC인삼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신입사원 채용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119년 뿌리 깊은 신뢰를 지켜온 글로벌 종합건강기업 KGC인삼공사와 함께 바른길을 걸어갈 재능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 연휴는 그림의 떡... 취업생 절반 "명절에도 구직활동"

사람인 구직자 385명 대상 설문 50% "쉬는 것 눈치 보며"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추석 연휴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인 구직자 38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구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구직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1.7%는 추석 연휴에 구직활동을 쉬고 싶다고 답했다. 이들은 연휴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휴식'(55.8%, 복수응답) ▲'여행'(34.7%)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30.2%) ▲'친구 등 지인과 만남'(20.6%) ▲'부모님 댁 또는 친척집 방문'(17.6%) ▲'취미생활'(16.6%) ▲'운동'

(9%)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58.2%는 연휴에 실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답해 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려는 이유로는 '취업이 급해서'(64.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어차피 마음 편히 쉬 수 없어서'(37.1%) ▲'쉬는 것이 눈치 보여서'(20.1%) ▲'목표 기업의 공고가 언제 뜰지 불안해서'(19.6%) ▲'취업 관련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17.9%) ▲'생활 리듬을 깨고 싶지 않아서'(12.1%) ▲'추석 연휴가 길어서'(8%) ▲'친척집은 당일만 방문하면 돼서'(5.8%)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말과 대체휴일 포함 5일이 주어지는 이번 연휴에 구직자들은 평균 4일간 구직 활동을 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계획하는 구직활동은 '채용공고 서칭'(78.6%,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47.8%) ▲'면접 준비'(18.3%) ▲'자격증 준비'(17.9%) ▲'어학시험 준비'(12.1%) ▲'포트폴리오 등 자료 준비'(11.2%) ▲'인터넷강의 및 학원 수강'(7.6%) ▲'스터디 참석'(4.9%) 등이 있었다.

반면 연휴 동안 구직활동을 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161명)은 그 이유로 '어차피 집중이 안될 것 같아서'(51.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연휴동안만이라도 쉬고 싶어서'(49.1%) ▲'평소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21.1%) ▲'가족, 친지들이 보고 싶어서'(10.6%) 등을 들었다.

/이범종 기자 joker@

### 교육부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자율학기제 전면시행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2학기부터 자율학기제를 전면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학기제를 시행하는 특수학교는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로 총 164개교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역시 48개교로 확대한다.

이번 자율학기제 시행은 2016년~2017년 자율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모든 학생·학부모·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결정됐다.

특수학교 자율학기제의 목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을 통한 미래생활 역량 강화다.

교육부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정해 자율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늘어나는 특수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기능 영역과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된 경우를 뜻한다.

/이범종 기자

### 학습에 재미까지... 교육업계 콘텐츠 경쟁

노래·퀴즈·게임 등 결합

교육업계가 학습 효과에 흥미를 더하는 교육 콘텐츠 경쟁에 돌입했다. 학습 주제를 놀이와 결합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한편, 음악을 접목해 언어 학습을 돕기도 한다.

좋은책신사고는 놀이를 통한 학습을 위해 우공비 공부카드를 전 학년, 전 과목 교재에 수록했다. 우공비 공부카드는 각 단원별 주요 개념과 용어로 제작됐다. 과목 특성에 따라 국어는 낱말, 수학은 개념, 사회와 과학은 핵심 용어를 담고 있다.

과목별 총 24장의 공부카드로 구성됐고, 과목별 또는 모든 과목의 공부카드를 모아 친구, 가족과 함께 퀴즈 놀이를 할 수 있다. 공부카드 뒷면에는 용어 관련 단원과 페이지를 표기하여 놀이 과정에서 틀렸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바로 확인해 복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화 좋은책신사고 마케팅 본부장은 "학습 개념은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면 오래 기억하기 어렵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된다"며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이번 공부카드를 새롭게 선보이게 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출판사는 유·초등생을 위한 영어



어린이들이 좋은책신사고 '우공비공부카드'로 학습하는 모습. /에듀피알

리딩 전집 '칸타타리닝' '디즈니 스토리 리딩'에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더했다. 영어 도서를 스토리를 접한 뒤 다양한 퀴즈, 게임으로 복습할 수 있다. 노래와 독서가 결합된 영어 리딩 프로그램 칸타타리닝은 미국 교과과정과 연계한 '액티비티 북'을 마련했다. 그림, 단어 맞추기 등 간단한 퀴즈로 단어, 문장, 읽기 활동을 반복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쌓인다.

디즈니·픽사·마블의 캐릭터, 스타워즈 시리즈 등으로 구성된 '디즈니 스토리 리딩'도 있다. 책을 읽은 뒤 액티비티 교재 '스토리 타임'을 통해 앞서 익힌 단어와 문장을 게임, 퀴즈, 리듬 찬트 등으로 한번 더 익힐 수 있다. 칸타타리닝과 디즈니 스토리 리딩은 필요한 경우 푸르넷 공부방, 잉글리시비더 공부방 전문 지도 교사에게 수업 받을 수 있다. /이범종 기자